석가모니 분신불의 출현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㉒ 다불설(多佛說)

그때 석가모니불의 분신인 여러 부처님들이 한량없는 천만억의 다른 국토에서 오셔서 팔방의 여러 보배나무 아래의 사자좌 위에 가부좌를 하고 계셨다. 그 부처님들 시자들도 각기 이 보살 대중이 삼천대천세계 사방의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허공에 머무름을 보고 각자 그가 모시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고 가없는 아승지의 보살 대중은 어디서 왔나이까?"

그때 여러 부처님들이 시자들에게 이르셨다.

"선남자들이여, 잠시만 기다려라. 여기 미륵이라는 보살마하살 있어, 석가모니불께서 수기하셨으니 다음에 부처님이 될 분이니라. 그가 이미 이를 여쭈었으니 부처님께서 이제 곧 답하시리니, 그대들은 스스로 이로 인하여 듣게 되리라."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아일다여, 그대가 능히 나에게 이런 큰일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마땅히 함께 일심으로 정진의 갑옷을 입고 견고한 뜻 일으켜라. 여래가 이제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자재한 신통력과 모든 부처님의 사자분신의 힘과 모든 부처님의 위엄 있고 용맹한 큰 세력을 나타내어 보이려 하노라."

"내 이제 이 대중 그 속에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아일다여, 이 모든 대보살마하살의 한량없고 가없는 아승지 수가 땅에서 솟아난 것은 그대들이 예전에 보지 못한 바이지만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얻고 나서 이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그 마음 조복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였니라. 이 모든 보살들이 다 사바세계 아래 허공 속에 머물러, 모든 경전을 독송하고 통달하며, 사유 분별해 바르게 이를 기억하고 있느니라. 아일다여, 이 모든 선남자들은 대중 속에 있으면서 말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항상 고요한 곳에 있기를 바라서, 부지런히 정진해 쉼이 없으며, 또 인간과 천상을 의지해 머물지 않고 늘 깊은 지혜를 즐겨 걸림이 없으며, 또한 언제나 모든 부처님의 법 즐겨서, 일심으로 정진해 위없는 지혜를 구했느니라."

대승불교의 특징 중 하나는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하는 다불설(多佛說)이다. 법신을 주불로 하여 삼세제불설(三世諸佛說), 시방제불설(十方諸佛說)이 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모두 부처님이 있다는 말이다.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 설주(說主)이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법이 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상설(常說)이라 한다. 〈법화경〉에서는 법화법문이 상설의 법문임을 강조한다. 이 장(章)에 석가모니 분신불이 출현했다는 말이 나온다. 한 불신이 나누어져 수많은 불신이 생겼다는 말이다. 분신불의 시자들이 땅에서 솟아 나와 허공에 있는 보살들을 보고 놀란다. 부처님은 이 보살들이 자신이 교화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 보살들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한 가지 명기할 점은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교화를 받은 이들은 성문이나 연각이 아닌 보살들이라는 점이다. 〈법화경〉은 소승법을 배격한다. 대승경전은 인간 석가모니의 역사적 행적을 알아내어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의인화된 법신의 활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법신의 활동을 보살들이 대행한다. 중생교화의 임무를 띠고 부처님이 설한 경전을 독송하고 통달하여 바르게 기억하고 있다고 경문에서 말했다. 부처님이 본래 설하신 〈법화경〉을 독송하고 통달해 있다는 말이다. 보살은 일승법(一乘法)에 의거하여 불사(佛事)를 하는 이들이다. '인간과 천상에 머물지 않고 지혜를 즐겨하여 걸림이 없다'는 말은 인천교(人天敎)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이다.

인천교란 선업을 지어 다음 생에 인간에 다시 태어나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기를 희망하고 또 천상에 태어나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인과법에 의지해 기복(祈福)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깨달음을 얻는 궁극적인 신행이 아니고 삼계를 벗어나는 해탈을 얻지 못하는 소승법보다 아래에 있는 불교다. 삼악도의 고통을 모면하는 선과(善果)를 얻지만, 소승이나 대승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본다. 규봉 종밀(圭峰 宗密, 780~841)의 오교설 가운데 맨 아래에 있는 판교(判敎)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안으로 간직한 청정·유연한 마음 중요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㉒ 보살도와 사십칠계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산의 풍경을 감상하게 된다면, 누구나 등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 마음이 조금 더 간절해지면 간단하게 짐을 챙겨 산으로 향할 것이다. 그런데 처음 산에 오르는 이라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 한참 동안 두리번거릴 것이다. 어떤 이는 길을 잃어 중도에 산행을 포기할 것이며, 어떤 이는 잠시 길을 헤매다가 산행을 계속할 것이다. 가령 처음부터 꿋꿋이 산에 오른 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쳐버릴 것이다.

처음 대승불교에 뜻을 일으킨 보살, 즉 초발의(初發意)보살 또는 신발의(新發意)보살도 처음 산을 오르는 이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대승불교의 이념에 매료되어 대승보살이 되기로 마음먹었지만, 막상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바로 보살도(菩薩道)이다. 초기 대승경전에서의 보살도는 6가지 바라밀을 닦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과 중생의 제도(濟度)를 원만히 해야 한다. 또 보살은 보살도가 성불의 바른 원인이며, 성불은 보살도의 결과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살도를 보살이 실천해야 할 정계(正戒)로 설하는 〈보살내계경(菩薩內戒經)〉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전은 송(宋)의 구나발마(求那跋摩)가 한역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한역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여하튼 이 경전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앞부분이 십이시설법부(十二時說法部)이다. 여기에서는 보살의 6가지 바라밀행을 설하지만, 설법 형식은 15일의 설계회(說戒會)에서 십이시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형식은 대승불교 이전에 행해졌던 반월(半月)의 포살설계회(布薩說戒會)이지만, 실은 보살행 전체가 계경(戒經)으로 온종일 설해지는 것이다. 각 시(時)에는 수계(受戒)의 형상(形相)으로 보살행을 설하는데, 시라(尸羅) 바라밀 부분에 47계(戒)가 나온다.

일본의 불교학자인 오노호도(大野法道)는 이 47계를 대승계조(大乘戒條)의 오래된 형태로 간주하면서 내용에 따라 6종류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오계 및 십선계에 해당하는 16가지 조목이다. 보살은 살생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을 속이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며,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또 보살은 이간하는 말, 욕설, 거짓말, 꾸미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질투하지 말아야 하며, 화내지 말아야 하며, 어리석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하며, 그릇된 마도(魔道)를 믿지 말아야 한다. 또 보살은 간탐(慳貪)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이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야 하며, 남녀 간에 서로 음란한 놀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부정한 계량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6가지)이며, 세 번째는 사람이나 가축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8가지)이며, 네 번째는 타인 침해를 금지하는 것(7가지)이며, 다섯 번째는 부정한 이의 집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7가지)이며, 여섯 번째는 자비로 베푸는 것(3가지)이다.

언뜻 보면 마지막의 3가지 조목을 제외한 44가지 조목은 금계(禁戒)의 형식을 띠는 듯하다. 그렇지만 제1계에서 강조하듯이, 살생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입·뜻으로 살생을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행동으로 드러나는 몸과 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마음속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이런 까닭에 경전에서는 "보살은 안을 경계하고 밖을 경계하지 않는다"고 설한다. 보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안으로 간직하는 청정하고 유연한 마음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㉒ 빨리어

빨리어 석가모니 당시 언어일까

석가모니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이에 대해 온전한 근거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례는 아직 없으며, 국내 학계나 해외 학계에서도 석가모니가 사용한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불교의 기록은 석가모니 이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본래 석가모니의 언어를 증명하는 단서로 인정하기 힘들다. 인도에서 기록문화가 다른 문명처럼 일찍 정착했더라면 이러한 고민거리는 쉽게 해소되었을지 모른다. 기록문화 대신에, 인도는 그 어떤 문명보다도 구전(口傳) 전통이 정교하게 발달한 곳이다. 하지만 초기 인도의 베다 전통과 달리, 불교는 일방적으로 하나의 구전언어를 성스러운 언어로 지정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베다와 같은 엄격한 구전 전통을 따르지도 않았다. 언어('소리')에 성스러움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도문화사의 특수성 때문에 석가모니가 본래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더욱 어렵게 만든다.

혹자들은 석가모니가 중세 인도-아리아어의 한가지로 분류되는 빨리어(Palī)를 사용했노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빨리어로 기록된 불경들 특히 동남아 상좌불교에서 전승되는 빨리어 장경이 불설의 초기 형태를 가장 잘 담고 있다는 주장도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20세기 초반에 일부 불교학자들이 만들어놓은 판타지에 지나지 않는다. 또는 전설적인 동남아의 전승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같이 비판 없이 설정된 전제 때문에 빨리어경전이 초기불교를 대변하게 되는 오류를 낳게 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정보가 범람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으나, 과도하면 자신의 신념이나 신앙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석가모니의 언어가 빨리어라는 확증편향이 현재 한국의 불교계에 널리 퍼져있는 이유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불교는 오랫동안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인식근거를 존중한 종교였으며, 불교계도 이러한 편향적 정보에 대해 언젠가는 합리적 판단에 임할 것이라 기대한다.

해외 불교학계나 국내 불교학계에서는 오랫동안 합리적 비판을 거쳐 석가모니의 언어와 관련해 꽤 설득력 있는 합의에 도달한 것들도 있다. 첫째는 우리가 아직 석가모니가 어떤 언어로 말했는지 모른다는 점이며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은 앞으로도 매우 적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불교혼성범어(Buddhist Hybrid Sanskrit)와 간다리어(Gandharī), 빨리어 등은 석가모니의 사멸 후에 등장한 어떤 공동의 가상적 모어(母語)에서 파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불교중세인도어(Buddhist Middle Indic)라고 부를 수 있다. 셋째는, 이 불교중세어 가운데 특히 빨리어는 어떤 한 지역에서 발생해서 통용되었던 자연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을 뛰어넘어 여러 지역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인공언어라는 점이다.

빨리어가 석가모니의 언어가 아닐 것이라는 오랜 학계의 합의가 다소 실망스러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직설에 가까운 언어는 빨리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며, 그것은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불경은 간다리(Gandhari)로 적은 것이다.

빨리 문헌이 붓다의 직설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텍스트라는 전제 역시 20세기 후반에 부정되었다. 그것은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지에서 유출되거나 발견된 필사본 단편들 때문이다. 스코이엔 콜렉션이나 바주어 콜렉션 등의 다수의 불경 필사본들은 빠르게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까지 작성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사본들이다. 이 필사본들은 빨리어가 아니라 같은 중기 인도아리아어 범주에 해당하는 간다리어로 작성된 것으로 빨리어텍스트 편집에 사용된 스리랑카의 필사본보다도 적어도 1500여 년 이상 앞선 것이다. 빨리어 니까야가 불설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불경이라는 전제는 20세기 후반에 간다리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의심을 받게 되었다. 가장 오래된 빨리어 필사본이 오래되어봐야 A.D. 700년 정도라고 해도(그것도 카투만두의 빨리어 필사본), 간다리 사본은 A.D. 1세기 전반까지 소급되기 때문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